

㉔ 東舍利孔(八寸一×八寸二×深四寸九)

金銅函(外部朱彩) 長六寸三分×幅五寸五五×高三寸八分  
金製盒 高三寸四分 下底一邊二寸四分×二寸

舍利瓶 高二寸(마개除外)

㉕ 西經板孔(九寸一×八寸一×四寸九)

金銅函(外部朱彩) 長八寸三分五、幅六寸二分八、高三寸四分  
金製經盒 高一寸九分 長六寸三分五 幅五寸三分  
純金經板 各板橫 五寸七分五、縱 四寸九分 字徑二分一一分五

(2) 心礎石東孔發見遺物

青銅佛像 全高五寸六分八 身高三寸〇六  
青銅鈴 徑九分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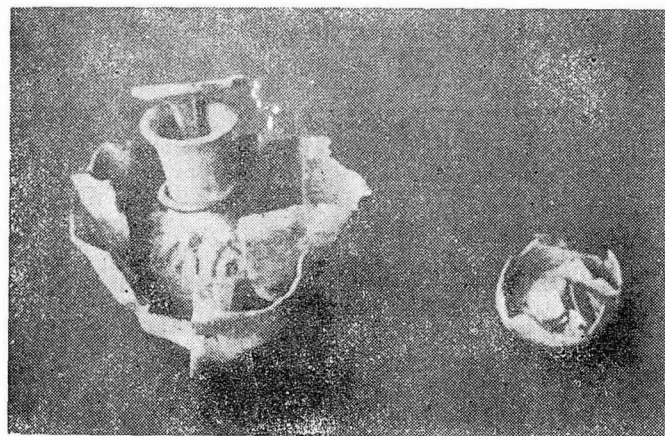
安東 臨河洞 三層石塔內 舍利藏置

秦 弘 燮

梨花女大에서는 安東郡 臨河面 臨河洞에 있는 四基의 石塔中 俗稱「창더(倉더)」라고 불리우는 地點에 있는 三層石塔 一基를 筆者 主管下에 解體調査한 바 이 調査에서 舍利具 一씩이 發見되었다. 이 調査는 十一月九日에 시작하여 十六日에 終了하였다. 原來 이 石塔은 下基壇 面石에 十二支像, 上基壇 面石에 八部象像을 彫刻한 二重基壇 위에 三層의 塔身으로 이루어졌으나 崩壞와 缺失이 甚하였다. 下基壇은 埋沒되었으나 解體後에 안 일이지만 十二支像을 彫刻한 二個 石材가 없어졌던 것을 附近民家에서 發見補完하였다. 上基壇 面石은 三石만 남기고 五石이 없어졌으며 附近 住民의 말에서 附近 堤防工事に 使用되었다 하나 正確한 地點은 알 수 없다고 한다. 三層屋蓋石 以上은 缺失되었었다. 現高 二m未滿의 小塔이지만 彫飾이 아름답고 各部 比例가 整齊된 美塔이었다.

舍利藏置는 第一塔身 上面에 圓孔을 마련하고 收藏하였는데 特別한 裝置는 없었다. 舍利孔은 第一塔身 中心에 徑一一·五—一二·五cm 深七·五cm의 淺은 圓孔을 鑿고 外皮로 한점 卍 壺가 있었는데 모두 鉛製였다. 그 옆에는 銅製 釵가 一個 누어 있는 것이 보였고 舍利孔 위에는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서 半以上 민지와 발레집으로 차 있었다. 이 塵埃 사이에서 유리제 丸玉과 舍利瓶의 破片이 보였고 織物片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 곳에 納置되었던 舍利具는 다음과 같다.

一、鉛製舍利壺 一個



진 족(길이 三·四cm)이 달린 圓形 平頂의 뚜껑을 가진 瓶形으로서 口緣部가 外反되어 가는 목이 달렸고 肩部에는 七葉의 蓮花紋을 陽刻하였으며 그 위에 四個의 突起가 있어 손잡이를 表示하였고 身部도 九角으로 모를 내고 있으나 各邊은 均一하지 않다. 목에는 銅製 鑲을 매 놓았고 밑은 平底이며 肩部는 一部 남아서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인 지 거의 圓形의

鉛板을 放射形으로 中心만 남기고 일곱줄로 잘라서 壺를 가운데 놓고  
우그러서 外皮를 삼았는데 그중 一片은 切斷되었다. 瓶內에는 아무  
것도 든 것이 없었다.

## 二、유리製 舍利瓶 一個

翡翠色の 小瓶이었으며라고 생각되나 形態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大破되어 小破片들이 塵埃속에 섞여 있었다. 大體로 밑은 平底이며  
목이 긴 瓶인 듯하다. 塵埃를 精査한 結果 舍利 八顆를 찾을 수 있  
었는데 이 瓶 속에 있었던 것이 散亂된 듯하다.

## 三、유리製 구슬 三十三顆

大小 二種이 있다. 色은 四種이며 가운데 구멍이 있고 실의 一部가  
남아 있어 처음부터 실로 꿰어서 넣었던 모양이다.

## 四、銅製 銅製 一個

銅製로서 끝이 切斷되었다. 根部에는 簡單한 裝飾을 添加하였다.

## 五、絹片 若干

紺色과 土色の 二種이지만 原形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남아서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이다. 現場에서의 所見으로는 밀바닥에 比較的 큰  
破片이 남아 있고 위로 갈수록 朽損이甚하였다. 上記 遺物들은 이 絹  
片 위에 놓여 있었고 유리製舍利瓶의 破片들도 그 위에 散亂되었던  
點으로 보아 原來는 前記 遺物들을 싸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以上 發見 遺物들을 概觀하였다. 石塔 自體가 小規模이니 舍利孔도  
따라서 적었으며 裝置方式 亦是 매우 疏忽하였다. 뚜껑을 덮지 않아 塵  
埃가 많이 쌓인 原因이 되었고 그 위에 舍利具 周圍에 아무 補強施設이  
없어 破損이甚했던 듯하다. 舍利裝置에 있어 香木을 넣는 일은 通例같  
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痕蹟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중에서 또  
鉛製壺는 稀例에 屬할 것이며 유리製舍利瓶은 復原後에야 그 全貌를 알  
수 있겠지만 色調와 形態가 아직까지 報告된 數例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推測되어 稀貴한 一例가 되었다. 다만 完形을 保存하지 못하고 破碎散  
亂되었음은 哀惜한 일이었다.

本塔은 이 洞리에 남아 있는 四塔중 가장 年代가 오랜 것으로 充實히

新羅典型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三塔은 모두 高麗時代石  
塔의 特徵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또 本塔의 附近에서는 羅末·麗初에 屬  
하는 瓦當, 磁器片, 靑銅器 등이 發見된 點을 參考하면 本塔이나 舍利  
具의 年代도 그 樣式과 아울러 羅末·麗初에 두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舍利具의 實測은 다음과 같다.

鉛製壺 高 5cm 口徑 1.1cm 底徑 2cm 腹徑 3cm

유리製舍利瓶 底徑 1.6cm

鉛製板 徑 9.5cm

銅製釵 長 8.5cm

追記一、本塔은 解體調査後 原位置에 復原建立하였으며 現地形은 田  
이지만 앞으로 開發할 計劃이라고 함으로 原地面에서 五寸 낮  
추어서 復原하였으며,

一、本塔에서 北方約 一五〇m地點 발 가운데 高麗時代 三層石塔  
이 遺存한 바 이와 隣接한 北方 民家內에서 今年 四月頃 銅製  
如來立像 一軀가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에 收藏되었다.

## 高靈 開津面 良田洞 先史遺蹟에 對하여

尹 容 鎮

良田洞은 大邱方面에서 高靈邑에 들어가서는 바로 길목에 位置한다. 俗  
稱 高靈邑 北方을 가로막고 있는 「錦山峠」의 東南쪽이 良田洞이다. 先史  
遺物이 散布되어 있는 곳은 이 錦山峠 頂上에 東南으로 뻗은 嘴狀丘陵  
一帶이다. 洛東江流域의 先史遺蹟 調査의 一環으로 昨年 六月과 九月의  
二次에 걸친 이 곳 踏査結果는 數年 동안의 大邱近郊의 調査에서 전혀 보  
지 못했던 形狀의 石器가 發見되었다. 아직 調査地域을 넓히지 못했던  
것과 文獻의 貧弱으로 이러한 石器들의 文化的 編年的 究明을 선뜻 못  
이루고 있는 實情이 나于 先簡約하게 紹介하여 많은 敎示를 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遺物은 모두 地上 採集이란 것을 前提로 한다.

二次에 걸쳐 採集된 石器는 蛤又有肩石斧 三個、牛角形石斧(假稱)